

해운기업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이전기업 지원 협의체(TF)」 본격 가동

- HMM 등 해운기업과 함께 부산 이전 지원방안 마련 예정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8일(수) 15시 부산에서 HMM 등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전기업 지원 협의체(TF)」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달, HMM이 본사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부산광역시·한국해양진흥공사에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 산하에 부산광역시와 한국해양진흥공사, HMM 등 선사가 함께 참여하는 「이전기업 지원 협의체(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해양진흥공사, HMM이 참여하였으며, HMM의 건의사항에 대해 「부산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지원 범위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협의체(TF)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 해운기업 모두에 적용 가능한 공통 지원방안과 기업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조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동남권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운기업의 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지원안을 도출하여 이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원배 (051-773-5710)
		담당자	서기관	김지환 (051-773-5720)